신라의 법향…감탄…숙연…찬불

감은사東탑 발굴유물 지상전

순금풍경·사천왕상등 금속세공 걸작품

국보급 유물 대량공개 조계종 사리인수 연말 봉안

1천3백년동안 묻혀있던 신라의 숨결을 담은 찬란한 유물들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4월 25일 경북 경주시 감은사지 東3층석탑(국보 제112호)의 해체·보수과정에서 발견된 금동제 사리함에서 순금 풍경과 사천왕상(四天王像) 장식 등 신라인들의 빼어난 금속세공술을 보여주는 국보급 유물이 다량으로 나왔다.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은 이 사리함에 대한 정밀해체 결과 금동제 사리기 1기를 비롯해 수정으로 만든 사리병, 금제 사리병 뚜껑 및 받침, 스님상과 사천왕상 각각 4구, 용상과 사자상 각각 4개, 금제 풍경 5점, 사리 55과 등을 수습했다고 밝히고 지난 5월30일 이를 공개했다.

이중 금제 풍경은 크기가 0.5~0.7㎝밖에 되지 않으나 순금판을 말아 풍경 모양을 만든 뒤 가운데에 금으로 된 심을 늘어뜨리고 여기에 소리를 내는 고리를 달아놓은 정교한 제품으로 전문가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번에 발굴된 사리함은 전체적인 짜임새나 기법이 1959년 서탑 해체시 나온 것과 비슷하지만 서탑의 것이 남성적인데 비해 규모면에서 조금 작고 여성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세공기술과 장식 등이 더욱 정교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이호관 미술부장은 "이번에 공개된 유물은 신라시대 금속공예기법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7세기 작품중 최고 걸작품"이라며 "불교조각사 및 공예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이달중 사리 55과를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인수, 서울에서 일정기간 사리친견법회를 가진 뒤 감은사탑이 복원되는 올 연말쯤 장중한 불교의식을 거쳐 다시 탑속에 봉안할 방침이다.

글:한명우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악귀밟은 지국천왕 사리기 외함 동쪽 몸체의 '지국천왕상(持國天王像)'. 높이 24㎝, 폭 19㎝로 지국천왕이 왼손에 금강저(金剛杵)를 쥐고 악귀를 밟고 있는 모습으로 그 형태가 확연하다.

사리기 받침 높이 6.4㎝ 폭 14.5㎝의 사리기 대좌(臺座·받침). 상대(上臺)엔 당초문(唐草文)과 앙연장식(仰蓮裝飾)에 가장자리에 난간을 설치해 놓고 있다. 중대(中臺)의 각 면엔 팔부신중상(八部神衆像)이, 하대(下臺)엔 연꽃이 장식돼 있다.

순금풍경 사리기의 지붕을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금제 풍경. 0.5/0.7㎝ 크기로 7세기 신라공예기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걸작이다. 사진은 실물크기를 현미경으로 확대촬영한 것.

신라의 미소 사리병 주위를 장식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크기 2.5~2.8㎝의 스님상. 발 아래에는 촉이 있어 꽂아서 세울 수 있게 되어있다.

사리기 복원도 부식이 심한 사리기를 컴퓨터로 복원한 사진. 전체높이(寶珠포함) 13.4㎝로 탑집모형이다. 가운데 연꽃처럼 생긴 탑인 빈 공간에 수정사리병을 안치했다. 난간을 두른 2층 대좌에 스님과 사천왕상 각 네점이 사리를 호위하듯 둘러 서 있다.

수정 사리병과 사리 높이 3.7㎝ 입지름 1.2㎝크기의 수정사리병과 영롱한 사리 세점. 뚜껑과 밑받침에는 연화문(蓮花文)모양으로 금실을 붙이고 그 위에 지름이 0.5㎜도 안되는 금알갱이를 1백여개나 붙였다.

8년만에 편찬작업 회향… 선어·공안·인명·지명·서명·사원명 등 9,100여 표제어 수록

禪學辭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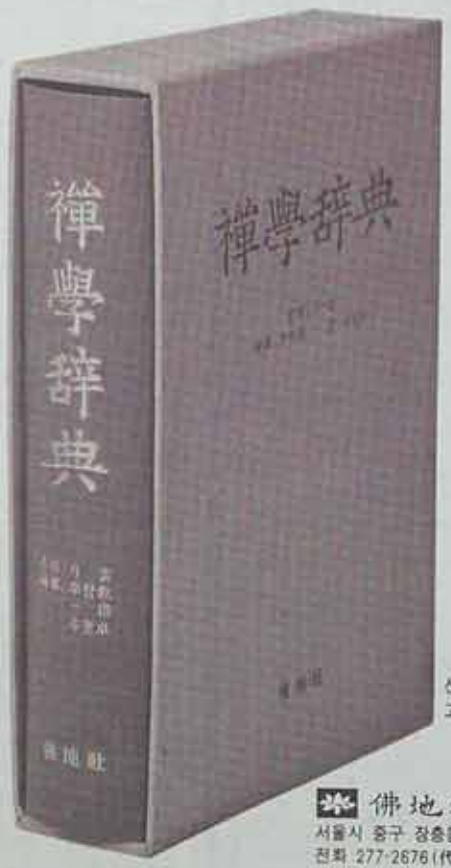
祖師의 바다를 건너려면 튼튼한 뗏목이 필요합니다

편찬 내용

1. **용어**는 각종 선문헌에 실려있는 선어, 청규, 성구, 구어, 속어 등 5,156 항목을 선정하여 내용과 용법을 상세히 풀이하였습니다.
2. **인명**은 선종의 어록과 전기 관계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중에서 수행 교화 저술등에 큰 공적을 남긴 1994년까지의 인물 2,253명을 선정해, 생몰년·소속종파·속성·법호·출신지·사승·수행경력·가풍·저술·시호·관계자료의 순으로 기술하였습니다.
3. **지명**은 저명한 선승들의 활동 지역과 사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132항목을 골라 옛지명과 현대의 지명을 함께 밝혀 놓았습니다.
4. **서명**은 선에 관한 간본·사본·돈황문헌을 중심으로 705항목을 선정해 그 문헌이 실려있는 총서 내의 권차와 편차를 해설문의 끝에 밝혀 놓았습니다.
5. **사원명**은 저명한 선승이 주석했던 사원과 유형 무형의 선문화 유산이 있는 사원 157항목을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6. **공안**의 명칭은 중복과 혼용을 가려 695항목으로 정리해 문답하는 인물과 내용을 출전과 함께 수록하였으며, 명칭은 공안집의 예를 따랐습니다.
7. **편찬 자료**로는 그동안 정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국내 선불교 관련 자료를 널리 수집하고, 중국 대만 일본에서 발행된 선종관련 문헌과 사전을 참조하였습니다.

특 징

1. 선종 관련 용어 인물 서명 사찰등 총 9,100여 항목을 엄선하여 해설함으로써 편찬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2. 기존의 사전에서는 볼수 없는 한국 선종과 관련된 용어 인물 서명 사찰등을 표제어로 발굴해 수록 해설한 우리의 선종사전입니다.
3. 각 항목마다 해설의 말미에 출전과 예문을 소개해 상세한 주석적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선어록에서 자주 사용되는 당·송대의 구어와 속어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등 풍부한 어문학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방대한 선학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편찬한 ▲선종사연표 ▲선종법계도 ▲선서목록 ▲선학참고문헌일람 ▲선종사지도 등 전체 분량의 4분의 1을 부록으로 엮었습니다.



신국판 / 1,000쪽 / 고급 양장케이스 / 값 45,000원

佛地社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8-6 뉴장충빌딩
전화 277-2676(代) 팩스 278-9118

부 록

1. **선종사연표** : 국내, 국외(인도 중국 일본)순으로 선가의 주요 사실들을 B.C. 544년부터 A.D. 1994년까지 정리해 수록하였습니다.
2. **선종법계도** : 선종의 법맥계승을 인도 중국 한국의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선종의 법계도는 태고 보우 이래 청허 휴정의 법계를 주안으로 삼아 수록하였습니다.
3. **선종사지도** : 불교가 전개된 주요 지역의 산이름과 사원 명칭을 인도 중국 한국의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4. **선서목록** : 선종과 관련된 경·율·론의 주요 전적과 선종 문헌을 나라·종파·시대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 **선학참고문헌일람** : 국내외의 선학사전및 일반 불교사전·연표·인명사전·목록 등 각종 참고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감 수

월 운 스님 봉선사 회주 / 현 동국대 역경원 원장

"곁에 두고 살펴보니, 남방의 선정 연대 출처 고증 내지 법어표기와 한글맞춤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절하게 손질되어 있어 실로 주옥같다는 말로 표현함이 과하지 않을 것 같다."

("감수의 말" 중에서)

편 찬

이철교 /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 동국대 중앙도서관 사서과장
일 지 / 해인사 강원및 불원 졸업 · 수국사
신규탁 / 일본 동경대 문학박사 중국불교사 연구 · 연세대 철학과 교수

전국 대형서점과 사찰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로 다량주문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 277-2676)